

강진의 차문화 전통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다산 정약용의 유배시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a Culture Traditions and Development of Contents in Gangjin
: With regard to Dasan Jeong Yakyong's time of exile

김성철** / 강민구***

국문요약 다산 정약용(1762~1836)은 2012년에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자이다. 유네스코는 강진 유배지에서 '다산이 꿈꾸던 청렴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열망과 실천력, 그의 여러 저서에 담긴 사유체계의 혁신, 법제의 개혁 그리고 평등주의라는 근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학사상'을 선정 이유로 들고 있다. 그는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사옥으로 1802년 장기에서 유배 중에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황사영 백서사건의 연루 의혹으로 조사받고 혐의없음이 입증되지만, 다산은 또 다시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강진은 유형자인 다산에게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유학 자로서의 학구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요소가 있었다, 하나는 강진 곳곳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 차나무를 이용한 차생활, 다른 하나는 인적 자원, 즉 강진읍 내의 헌신적인 제자들, 인간적인 신의와 배려로 교분을 이어간 불가의 승려들 그리고 다산 초당을 처소로 기꺼이 내놓은 외척인 해남 윤씨 사람들이다.

유배지에서의 차생활은 그의 관조와 성찰, 용서와 화해의 삶, 군왕과 국가에 헌신하고 백성을 섬기던 초인적인 저술 작업의 밑거름이 되었고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강진에서 유배기간 내내 이루어진 다산의 차생활과 그가 남긴 차문집 속에 반영된 차문화 전통을 살펴보고 강진 차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어 다산 정약용, 유배, 차생활, 차문화, 차문화 콘텐츠

* 이 논문은 세한대학교 2023학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제1저자).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교신저자).

1. 서론
2. 다산의 차생활
3. 시문 속의 차문화
4. 차문화 콘텐츠의 개발
5. 결론

1. 서론

다산 정약용¹⁷⁶²⁻¹⁸³⁶은 2012년 헤르만 헤세, 클로드 드뷔시, 장 자크 루소와 더불어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자이다. 유네스코는 강진 유배지에서 ‘다산이 꿈꾸던 청렴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열망과 실천력, 그의 저서들에 담긴 사유체계의 혁신, 법제의 개혁 그리고 평등주의라는 근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학사상’을 선정 이유로 들고 있다.⁰¹ 그는 『육경사서』에 관한 경학 저술서, 또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으로 대표되는 경세서와 더불어, 농업, 건축, 토목, 문학, 의학, 천문학, 역사, 지리, 음악,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저술을 남겼다. 다산은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진주 목사를 지낸 아버지 정재원과 어머니 해남 윤씨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777년에 그는 성호 이익의 저서를 접하고 실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783년에 진사과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입학하여 태학생으로 학업을 계속하였다, 이 때 정종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게 된다. 1789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규장각 초계문신을 거쳐 동부승지, 병

01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504쪽.

조참의, 우부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배다리, 수원화성, 거중기 설계 등 기술 관료의 능력도 보여주었다. 경기도 암행어사 시절에는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목민관의 의무를 철실히 깨닫게 된다. 정조가 49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1789년 1월부터 1800년 봄, 낙향할 때까지 약 12년에 걸친 그의 벼슬살이도 함께 끝나게 된다⁰².

18~19세기 초반 신유교의 전통성이 약화되고 서학과 천주교가 함께 들어오면서 조선 후기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남인 유학자들은 신유교의 관념론을 극복하고 조선 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반면, 당시 권력핵심층인 노론 계열의 지식인들은 국가의 통치이념인 신유교를 고수하며 정략적 이유에서 서학을 배척하고 천주교를 탄압하기에 이른다. 신유교와 서학의 이러한 사상과 문명의 충돌은 신유사옥의 발단이 된다. 다산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서양의 과학기술 문물과 천주교에 찬성하는 신서파에 가담하여 교리 연구와 신앙 모임에 깊게 연루되어 그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노론 벽파의 온갖 비방과 공격을 받고 정치적 폭압에 직면한다.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사옥으로 1802년 장기에서 유배 중에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만형 정약현의 사위인 황사영 백서 사건의 연루 의혹으로 조사받고 혐의 없음이 입증되지만, 다산은 또다시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유배지에서의 생활 자체는 불편하고 힘들었다. 사약을 받아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기약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강진은 다산에게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유학자로서의 학구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든 두 요소가 있었다. 하나는 강진 곳곳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 차나무와 차문화 전통에

02 박흥기, 『다산 정약옹과 이담 스미스』, 백산서당, 2003, 59~63쪽.

기반한 차생활, 다른 하나는 인적 자원, 즉 그와 함께했던 헌신적인 제자들, 인간적인 믿음과 배려로 깊은 친분을 이어간 불가의 승려들 그리고 다산 초당을 처소로 기꺼이 내놓은 외척인 해남윤씨 사람들이다. 해남윤씨 녹우당의 실용적인 장서들은 그의 학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산 스스로도 자신은 외가의 정수를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강진은 이미 고려시대에 차의 산지와 생산, 제다와 활용의 중심지였다. 월남사지를 창건한 정혜결사의 진각국사¹¹⁷⁸⁻¹²³⁴와 백련사의 원묘국사¹¹⁶³⁻¹²⁴⁵ 요세⁷스님은 불교 융성과 함께 번성했던 고려왕조의 겸소하고 담박한 차문화를 대표하는 차승이다. 월남사지, 무위사, 백련사는 강진 차문화가 발원한 사찰이다. 만불사 혹은 만덕사라는 별칭을 가진 백련사는 1211년^{고려 희종 7년} 원묘국사가 옛터에 중창하고 백련결사⁰³로 크게 이름을 날려 백련사로 부르게 되었다. 예부터 백련사는 고운 정성으로 차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차 인연을 수놓았다. 백련사 옆 다산 초당에 적거했던 다산은 백련사에 자주 들러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한다. 다산 초당 경내에는 다산이 차 삼매경에 빠져 조성한 정석, 약천, 다조, 연지석가산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여기서 다산의 차생활은 그의 관조와 성찰, 용서와 화해의 삶, 군왕과 국가에 충성하고 백성을 섬긴 열정적인 저술 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백련사의 여연스님은 “조선시대의 차의 대명사인 작설차가 바로 여기 강진

03 고려 후기 정치와 종교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몽고와 왜군의 침략으로 살육과 농물로 점철된 고난의 시대에 요새 스님은 어둠의 한가운데서 온 몸으로 희망을 말하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결사운동을 벌인다. 백련결사는 삶 속에서 민중들과 함께 참회와 영불수행을 통해 현세를 정토로 만들자는 최초의 민간 결사운동이었다. 원묘국사의 백련결사는 120년간 고려 8분의 국사(원묘국사, 원조국사, 원환국사, 진정국사, 원혜국사, 정명국사, 진감국사, 목암국사)를 배출하고 번창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백련사는 청허 휴정선사의 의발을 전수받은 8명의 종사(소요대사, 해운대사, 취여대사, 화악대사, 설봉대사, 송파대사, 정암대사, 연파대사)를 배출하여 이어져 내려왔다. 백련사에 8국사와 12종사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8국사는 고려 때 나왔으며 8종사는 조선시대에 배출되었으니 앞으로는 4종사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에서 나와서 남차, 정차, 만불차를 거쳐, 일제 강점기의 백운옥판차, 금릉월산차, 금릉다산향 등 상표를 갖춘 차로 꽃을 피웠다. 강진은 근현대 차산업 유통의 출발점이었다⁰⁴고 주장한다. 백련사의 차문화는 백련사의 주지인 아암 혜장^{1772~1811}과 다산의 차 교류를 통해 단순 지역을 넘어 조선 후기 우리나라 차문화의 전성기를 향한 발판이 마련되고 이후 근현대의 차의 상품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야생 차나무가 무성했던 월출산 밑자락의 월남사지와 백운동 원림, 덕룡산 용혈암, 대구면의 청자도요지와 일속산방 폐허지 등도 강진의 차문화가 발원했던 구역으로 구분된다. 월남사지는 월남사가 위치했던 절터이다. 민족문화연구원의 발굴조사^{2012~2014}로 여기서 발견된 돌로 만든 차 맷돌은 당시의 사찰에서 차를 직접 만들어 마시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한다. 원주 이씨의 백운동 원림은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월출산 밑 자락에 호남의 전통 원림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백운동 원림은 다산과 초의 의순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시문집의 백미, 『백운첩』이 만들어진 곳이다. 백운동 아래 같은 원주 이씨 집안의 이한영^{1868~1956}의 생가는 일제 강점기에 금릉월산차, 백운옥판차가 만들어진 곳으로 다산의 차생활의 영향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용혈암에서는 당시의 청자유물이 대거 발굴되어 차를 만들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고려의 차문화 원형을 볼 수 있다. 다산이 진정국사 천책 스님을 그리위하여 꽃이 만발하는 봄에 매년 정례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소풍을 다녔을 만큼 좋아했던 곳이다.⁰⁵ 대구면 일대의 청자도요지는 강진이 차와 도자기 산업의 진원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향동마을의 일속산방은 다산의 시제자인 황

04 여연 스님, 「강진, 우리차 문화 미래를 열다」, 『강진신문』, 2012.06.11.

05 양광식 편, 『강진과 차』, 강진문사고전연구소, 2006, 67~68쪽.

상¹⁷⁸⁸⁻¹⁸⁷⁰이 살았던 곳으로 그는 다산과 초의 등과 더불어 강진 차를 전국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일찍부터 차의 약용에 관심을 가졌고 평생 동안 차를 마시며 10대부터 다양한 차시를 썼다. 그는 유배지 곳곳의 차나무 군락지를 둘러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차생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서 중국의 『다경』 등 차 관련 서적의 연구를 통해 습득한 제다법, 전다법, 음다법을 기반으로 잎차와 떡차, 산차와 다식까지 만들었다. 본 논문은 차의 고장인 강진에서 지낸 유배기간 동안 다산 정약용의 차생활과 그가 남긴 시문 속에 반영된 차문화 전통을 살펴보고 강진의 차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다산의 차생활

조선시대에는 차문화가 다소 쇠퇴기에 들어선 시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록 왕실과 사찰을 중심으로 차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고려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한적하고 담백한 취미를 가진 관료와 문인들, 사찰의 승려들 사이에서 여전히 차가 애호되고 있었다. 17~18세기에 차를 즐기던 일본이나 청나라의 현지 차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유학자들 사이에서 차의 실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와 관련된 저서들이 발표되었다. 홍만선¹⁶⁴³⁻¹⁷¹⁵의 『산림경제』, 유득공¹⁷⁴⁸⁻¹⁸⁰⁷의 『경도잡지』, 서유구¹⁷⁶⁴⁻¹⁸⁴⁵의 『임원경제지』, 이유원¹⁸¹⁴⁻¹⁸⁸⁸의 『임하필기』 그리고 임형규¹⁷⁶³⁻¹⁸⁴⁰의 『다설』 등이 그것이다.⁰⁶ 차에 관한 저술들이 잇달아 나

06 한은주, 『다산 정약용의 다생활과 수선철학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8쪽.

왔어도 차문화 중흥의 기폭제가 된 것은 역시 다산 정약용이었다. 귀양지 척박한 환경에서 그는 늘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생활은 신체 기능의 저하를 초래했다. 답답한 현실로 율화가 치밀어 어찌다가 고기 몇 점만 먹어도 체증을 겪었다. 부실한 영양 상태로 학질을 달고 살았고 나중에는 빈혈과 중풍까지 왔다. 차를 마셔야만 해결될 문제였다.⁰⁷ 차는 갈지, 소염작용, 진정 진통작용, 각성효과, 숙취해소 등의 약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질병의 증세를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을 가져 온다.⁰⁸ 다산은 또한 차가 지니는 정신적 정화기능을 통해 유배생활 중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차에 깃든 정신을 마시는 것으로 차를 통해 정신을 수양하고 청담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차는 현실에서 은일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선비는 대범함과 깨끗함, 고상함과 소박함이란 품격을 지니고 속세에서의 정신의 독립과 세속의 초탈이라는 이상적인 삶을 꿈꾼다. 이 경우 차는 자아를 성찰하게 하고 초연한 정신세계를 맛보게 하는 성물과 같은 것이다.⁰⁹

다산은 청년시절부터 차를 즐겨 마셨다. 손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내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범절이었던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일상화된 차생활 속에서 다산도 10대부터 연천 현감, 화순 현감 그리고 예천 군수 등 고을의 수령을 지낸 부친의 부임지를 찾아 차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다산의 다시 속에 열거된 차의 이름으로는 소용단, 용단, 다천, 신차, 만차, 월중차, 오차, 작설차 등이 있다. 그가 차를 한 번 마시는 양은 3완 정도이고, 완보다 작은 배로 차를 여러 번 자주 마시기도 하였

07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12~13쪽.

08 한윤숙, 「다산 정약용의 실용적 차인식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43, 2019, 277쪽.

09 조민환, 『동양예술미학산책』, 성균관대 출판부, 2018, 527쪽.

다. 다산이 차를 마실 때 이용한 도구들로 은병, 다정, 다조, 완, 다종, 대구, 배 등이 있다. 은병은 물을 담는 그릇이고, 다정은 차를 끓이는 차 솥이고, 다조는 차 화로이다. 완, 다종, 대구, 배는 차를 마시는 도구이고 다산은 요즘의 다완과 형태가 유사한 찻 사발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다산은 용단, 소용단과 같은 단차를 가루 내어 주로 끓여 마셨다. 음차 방법으론 주로 단차를 차 맷돌로 가루 내어 물에 넣어서 끓여 유차로 마시는 점다법을 애용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관료들이 단차를 음용하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었다. 다산은 집에서나 성균관 시절 국자감에서도 차를 마시고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에서 왕과 함께 용차를 마셨고, 금정 찰방으로 좌천되었을 때의 금정역루, 곡산부사 시절의 곡산정곡이나 상산정사당 등의 근무지 관청에서, 풍광이 좋은 정자에서, 성주암이나 자효사 등의 명승지에서 차를 즐겼다. 여행꾸러미 안에 차 도구를 챙길 만큼 다산의 생활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중과 일상화된 음다 습관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손수 차를 끓이며 차 안개, 차 향기 그리고 차 끓는 소리에 취해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달래고 마음의 안식과 용기를 되찾고 정치적 반대파에 의해 좌천되고 벼슬관직을 잃은 시련과 좌절의 순간에도 후일을 기대하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수용하는 다인이었다.¹⁰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되고 4년이 지난 1805년 4월 17일에 백련사로 놀러갔다가 처음으로 아암 혜장^{1772~1811}과 만나면서부터 차를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했다.¹¹ 그간 울화가 쌓여 답답한 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주역』과 『논어』 등을 공통 관심 주제로 삼아 토론을

10 박말다, 『정약용의 차생활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55~160쪽.

11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7, 588쪽.

거듭하고 서로 유불의 사상을 주고받으며 차를 통한 사제 관계를 돈독히 하기도 했다. 초의 의순¹⁷⁸⁶⁻¹⁸⁶⁶은 우리 차문화사와 불교문학에 크게 기여한 고승이고 시승으로 『다신전』과 『동다송』 등 차 저술 속에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다선일미의 철학을 제시하였다. 초의는 초당 정착 이듬해인 1809년에 다산을 처음 만난 이후 사제의 인연을 맺고 다산 초당과 대둔사를 지속적으로 왕래하였다. 초의가 전문적으로 차를 알게 된 것은 다산을 통해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초의가 당시 차를 손수 만들어서 마시던 다산에게 제다법을 전수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진다. 초의는 다산을 ‘부자’라고 예우하고, 다산 또한 초의를 ‘중부’¹²라고 호칭하며 그에게 “거처에 얽매이지 말고 운유사방하며 나라의 명산과 국중의 명사를 두루 찾아 다녀 미혹을 훌훌 떨쳐 버릴 것을 주문했다.”¹³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초의는 다산의 두 아들, 학연과 학의, 추사 김정희, 정조의 사위인 해거재 홍현주, 자하 신위 등 한양의 문사들과 차를 매개로 시를 짓고 교류하였다. 초의는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다산에게 매년 차를 보내고, 또한 추사에게도 차를 선물하였다. 그 결과 초의 차는 강진의 제자들이 만들어 스승에게 보낸 다산 차가 유명세를 탄 것과 똑같이 다산과 추사의 명성에 힘입어 경화세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¹⁴ 다산, 혜장 그리고 초의, 이후 다산, 초의 그리고 추사를 잇는 차 생활은 조선 후기 한국 차문화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초당에서의 다산의 차생활은 제자들과 함께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직접 수확하여 이루어졌다. 다산의 잎차는 찌거나 덪지 않고 햇볕이

12 중부는 이백의 시에 나오는 선인장차를 만든 금릉의 승려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로 훗날 자하 신위가 그에게 붙여준 ‘전다박사’라는 호칭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3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379쪽.

14 장의순, 『초의선집』, 동문선, 1993.

나 그늘에 말려 시들게 해서 잎이 부드럽게 되어 차향이 강해지는 시점에 불에 쪼여 천천히 건조시켜서 완성하는 배쇄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산이 당진 시절 막내 제자인 백운동 이시헌에게 1830년에 쓴 편지¹⁵에서 단차, 즉 다병의 제다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다병은 차를 찌고 말리는 것을 3회 이상 반복한 후에 가루로 만들어, 마른 분말가루에 석수를 섞어 진흙처럼 반죽한 뒤 작은 떡으로 만들어 건조시킨 단차이다. 다산은 구증구포와 삼증삼쇄의 방법으로 차의 강한 성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여러 차례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였다. 반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카테킨의 함량이 감소되고 테아닌과 질소의 함량은 증가하여 마시기에 부담 없는 상태로 제다할 수 있었다.¹⁶ 다산은 차가 정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마음대로 마구 차를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주변에 빠뜨리지 않았다. 1801년 다산과 같이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장흥에게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인척인 이관기에게 약간의 차를 보내면서 차의 부작용을 상기시키며 고기를 먹어 체했을 때가 아니면 차를 자주 마시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¹⁷

초당에서의 음차 관행과 제다의 모든 공정은 다산의 사후에도 오랫동안 「다신계절목」으로 명문화되어 전승되고 강진 인근에 자급자족의 차문화 전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훗날 강진 차를 상품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진의 작설차가 일제 강점기에 금릉월산차, 백운옥팍차, 금릉다산향 등으로 생산지 상표 포장으로 최초로 출시되고, 1960년대에는 다산야생차, 만덕산일심차, 야생죽로차, 보은차, 2007년에는 차생산조합인 만경다설의 자아, 설아, 반야병다 등이 판매되었다. 1980년대

15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572쪽 재인용.

16 이현정, 『한국 전통 제다법에 대한 융복합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81쪽.

17 박말다, 앞의 글, 167~168쪽.

부터 (주)태평양의 장원산업에서 백운동 아래의 월남리 일대에 10여만 평의 다원을 조성하여 설록차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 시문 속의 차문화

다산은 유배되기 전에도 20년 이상 가족과 차를 마시고 궁성이나 관청에서의 찻자리 또는 왕과의 다회를 통해 왕실, 귀족층의 관리와 선비들의 차문화를 두루 경험하였다. 그런 문화에 익숙한 그의 일상을 여러 다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0~30대까지의 대표적인 다시와 유배 초기의 절명시 그리고 초당의 다조와 약천을 노래한 시문 등에 반영된 차문화를 살펴본다.

그는 부친의 부임지인 화순 만연사의 성주암에서 차를 끓여 마시고도 갈증에 목말라 시원한 석천 물을 시험해 본다는 내용을 담은 「성주암에 올라가」¹⁸라는 다시를 10대에 읊었다. 또 부친이 예천군수로 승진하여 부임한 예천 관아에 있는 반학정에서 여름날 공부하다가 낮잠에서 깨어난 다산에게 어린 기생이 차를 가지고 오는 모습이 「여름날 못가 정자에서 지은 절구」¹⁹에 묘사되어 있다. 사람들이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가시게 하여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차의 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대의 차시인 「미천가」²⁰에서 ‘용단차에 고질병을 다스린다’라고 차의 약효를 언급한 구절은 용단차^{뽕차}를 준비해 두었다가 약용으로 차를 마시는 당시의 일반화된 차문화를 나타낸다. 미천의 맑은 약수에 차를

18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1, 서울출판사, 1996, 40~41쪽.

19 위의 책, 49쪽.

20 위의 책, 56쪽.

끓여 맛을 음미할 만큼 물의 중요성을 다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봄날 체천에서 지은 잡시」²¹에서도 마을에서 어렵게 얻는 햇차를 체천의 맑은 물로 끓여 마신다고 말하면서 재차 수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검단산은 경기도 하남시 동쪽 한강변에 위치한 높이가 650미터의 산으로 산속 깊은 백아곡에서 차가 자생하였다. 「여름날 누산정사에서 쓴 잡시」²²는 다산이 진사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고 장남 정학연이 태어난 1783년에 쓴 것으로 그가 회현방 새 집으로 이사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차를 대접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당시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조선의 사대부는 흔히 우정의 표시로 차를 선물했으며 차를 마시고 시를 읊었고, 술을 마신 뒤에도 차를 마셨다. 즉 술과 차, 그리고 시가 통합된 하나의 문화적 코드였던 셈이다.²³ 「여름밤에 달을 마주하고」²⁴에서는 두둥실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고 무더운 여름밤에도 뜨거운 차를 마시고 갈증을 잠재우는 다산의 습관적인 음차를 확인할 수 있다.

30대에 지은 차시인 「여름 날에 소회를 적어 죽부 이조참판에게 올린다」²⁵에서는 종교 문제로 좌천되어 경성으로 돌아왔지만, 실직을 받지 못해 쓸쓸하고 한가로운 시간에 게으름 피우고 아이들과 지내는 일상을 묘사한다. 「죽란사 모임에서 윤이서, 이주신, 한혜보와 함께 전가하사 팔십 운을 지었다. 바둑알 점운법을 이용하였음」²⁶에서는 죽란사의 시 동인모임에서 시를 써서 노래하는 문예 활동 중에 서로 술과 차를 권하는 음주와 차생활이 일반적인 문화 의례였음을 엿볼 수 있다.

21 위의 책, 62쪽.

22 위의 책, 86쪽.

23 송재소 외, 『한국의 차문화 천년 1: 조선 후기의 차문화-시』, 돌베개, 2009, 7~8쪽.

24 정약용, 앞의 책, 99쪽.

25 위의 책, 77쪽.

26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2, 서울출판사, 1996, 71~75쪽.

「정각 낙성을 보고 그저 읊다」²⁷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관직을 박탈한 상실감과 우울함을 달래기 위하여 다산이 찻잔을 씻을 틈도 없이 하루에도 빈번히 차를 마셨음을 보여준다.

다산은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에 도착하여 1801~1805년까지는 그가 '사의재'²⁸라고 이름 붙인 강진현 동문 밖 매번가에서, 1805년 겨울을 고성사 보은산방에서, 1806년부터 2년 동안 제자인 이청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이 시기에 다산은 주로 사찰의 차를 얻어 마시고 1805년 혜장을 만나 봄부터 그해 겨울까지 세 번에 걸쳐서 차를 요청하는 결명시를 보낸다. 최초의 결명시는 혜장을 만난 후 몇 일이 지나서 1805년 4월 17일 보낸 「혜장 상인에게 차를 청하며 부치다」²⁹라는 제목의 시이다.

전해 듣자니 석류봉 바로 아래서
예전부터 좋은 차가 난다고 하네.
지금은 보리 말릴 계절인지라
기도 피고 창 또한 돌아났겠네.
궁한 살림 장애함이 습관이 되어
누리고 비린 것은 비위가 상해.
돼지고기 닭죽 같은 좋은 음식은
호사로워 함께 먹기 정말 어렵지.
더부룩한 체증이 아주 괴로워
이따금씩 술 취하면 못 깨어나네.
스님의 숲속 차 도움을 받아

27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1, 서울출판사, 1996, 125쪽.

28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6, 서울출판사, 1996, 131쪽.

29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1, 서울출판사, 1996, 325~326쪽.

육우의 차 솥을 좀 채웠으면.
보시하여 진실로 병을 낫게 해 주면
뗏목으로 건저춤과 뒤편 다르리.
모름지기 찌고 말림을 법대로 해야
우렸을 때에 빛같이 해맑으리라.

여기서 다산은 더부룩한 체증과 숙취를 다스리기 위해 차를 꼭 보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일창일기의 찻잎을 따서 불에 익혀 햇볕에 말리는 절차를 반드시 법에 따라 해야 나중에 해맑은 차를 우려낼 수 있다고 말한다. 강진 보림사 죽로차의 구중구포 제다법을 스님들에게 처음 알려 주었듯이 다산은 백련사의 주지스님으로 새로 부임한 혜장에게 제다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제자인 색성이 다산에게 차를 선물한 사실을 알고서 차는 보내지 않고 「탁옹께서 내게 시를 보내시어 좋은 차를 구하셨다. 마침 색성이 먼저 드렸으므로 다만 그 시에 화답만 하고 차는 함께 보내지 않는다」는 응답 시만을 보냈다. 그래서 「혜장이 나를 위해 차를 만들어 놓고, 마침 그의 문도인 색성이 내게 차를 주자 마침내 그만두고 주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하는 글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의 운을 쓴다」라는 시제의 두 번째 절명시³¹를 보낸다.

옛날에 문여가는 대를 탐했고
오늘날 탁옹은 차에 빠졌네.
하물며 그대는 다산에 사니

30 정민, 앞의 책, 520쪽 재인용.

31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2, 서울출판사, 1996, 32~327쪽.

온 산에 자순이 돌아났으리.
제자의 마음 씀은 저리 후한데
선생의 예법은 매정도 해라.
백 근을 준대도 마다 앓을 터
두 꾸러미 주는 게 뭐가 어때서.
만약에 술이 달랑 한 병뿐이면
어이해 깨지 앓고 길이 취하리.
유언충의 찻그릇 이미 비었고
미명의 돌솥도 쓸데가 없네.
이웃 사방에 배탈 난 사람이 많은데
찾아오면 무엇으로 고쳐 주리오.
오직 다만 벽간월로 부응하셔서
구름 속 맑음 모습 토해내시게.

혜장의 응답 시에 대한 반응으로 다산의 투정어린 위트와 해학이 드러난다. 다산은 스승의 너무 야박한 태도를 지적하며 약속대로 마저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차가 바닥나고 설사로 고생하는 이웃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여가가 대나무 그림에 반한 것처럼 자신은 차에 빠져 있어 차 없이 하루도 지낼 수 없음을 하소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명소인 「결명소 율축동 증아암선사」³²를 1805년, 겨울에 보낸다.

나그네는 요즘 들어 다도, 차 욕심쟁이가 된 데다, 겸하여 약용으로 충당

32 정민, 앞의 책, 149쪽 재인용.

하고 있다오. 글 가운데 묘한 깨달음은 육의의 『다경』 세 편과 온전히 통하니 병든 숫 누에는 마침내 노동의 일곱 사발 차를 다 마셔 버렸다고요. 비록 정기를 고갈시킨다는 기모경의 말을 잊지는 않았으나, 마침내 막힌 것을 뚫고 고질을 없앤다고 한 이찬황의 벽을 얻었다 하겠소.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뜬 구름은 맑은 하늘에 환히 빛나고, 낮잠에서 깃 깨어나자 밝은 달빛은 푸른 시냇물에 흩어진다. 잔 구슬 같은 찻가루를 날리는 눈발처럼 흩어, 산 등불에 자손의 향을 날리고, 숯불로 새 샘물을 끓여 야외의 자리에서 백토의 맛을 올린다. 꽃무늬 자기와 붉은 옥으로 만든 그릇의 변화함은 비록 노공만 못하고, 돌솥 푸른 연기의 담박함은 한자보다 많이 부족하다네. 해안어안은 옛 사람의 즐거움이 한갓 깊은데, 용단봉단은 내부에서 귀하게 나눠줄을 이미 다했다오. 게다가 몸에는 병이 있어 애오라지 차를 청하는 마음을 편다오. 들으니 고해를 건너가는 비결은 단나의 보시를 가장 무겁게 치고, 명산의 고액은 서초의 으뜸인 차만 한 것이 없다고 들었소. 애타게 바람을 마땅히 헤아려,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오.

‘소’란 원래 임금에게 상신하는 글로 소를 바치는 심정으로 쓴 다산의 유머와 애뜻함이 물씬 풍겨난다. 차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보여준 감동적인 걸명소를 받고 혜장은 부처에게 보시할 비상 차를 보내주었다고 한다.³³ 다산은 자신을 ‘다도’, 즉 차에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병든 숫 누에’로 칭하며 ‘노동의 일곱 사발 차를 다 마셔 버린 것’처럼 체기를 내리는 차의 약효 때문에 차에 대한 벽이 생겼다고 말한다. ‘세주비설’이라는 구절은 찻가루가 눈발처럼 흩날리는 형상을 묘사한 것으로 당시 주로 떡차를 마시던 차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걸명소」는 『다경』뿐만 아니

33 이윤경, 『굴산 이유원의 다산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67~168쪽.

라 중국의 여러 다서를 통해 습득한 차의 부작용 혹은 약효와 효능, 차의 종류, 중국의 저명한 다인과 다시를 인용하고 있어 차에 대한 학술 지식과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 다른 유명한 걸명시는 초의 의순에게 죽로차를 요청한 황상 1788-1870의 것이다. 황상³⁴은 대나무 잎의 향이 차잎에 스미도록 대나무 잎과 차잎을 함께 볶어 차를 만든 새로운 제다법을 언급하고, 육우 이래로 건안차에 얽힌 스토리와 승퇴와 배수 등의 고사를 끌어와서 초의 차야 말로 역대 차의 모든 장점을 집대성한 최고의 차라고 극찬하였다.³⁵

육우가 차 잘함은 이름만 들려오고
건안차의 승부는 소문만 전해지네.
승퇴니 배수니 한갓 귀만 시끄러워
초의 스님 무리 중에 우뚝함만 못하다.
땃잎을 함께 볶아 새 방법을 사용하니
복원의 이후로 집대성을 하였다네.
명선이란 좋은 이름 학사께서 주시었고
(추사가 명선이라는 호를 주었다)
초의 차라는 그 이름을 선생에게 들었었지.
(유산 정학연은 차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를 일러 초의 차라고 했다)
아계가 남령에 미치진 못했어도
오히려 전천 아래 능히 둘 만하였다네.

34 황상은 다산이 가장 아꼈던 강진 시절의 제자다. 초의 역시 다산이 가르침과 당부,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증언첩을 가장 많이 써준 그의 애제자다. 초의와 황상도 노년에 차와 차시를 매개로 친밀한 교류를 가졌다. 한국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세 사람의 특별한 인연과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황상의 걸명시를 여기서 다룬다.

35 한은주, 『다산 정약용의 차생활과 수신철학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6쪽.

(석가여래가 태자였을 때, 백리고를 세워놓고 살 한 대를 쏘아 북 일곱 개를 꿰뚫었다. 살이 땅에 박히자 샘물이 솟아났다. 병든 사람이 마시면 모두 나았다. 전천이라고 이름했다.)

청하노니 자용향과 어안송풍 아끼지 말고

티끌세상 찌든 속을 세 번 네 번 씻겨주소.³⁶

이상 살펴본 차를 청하는 걸명시문은 차가 선비들 사이에서 마음의 선물로 주고받거나 또 체증과 설사 등의 병을 다스리기 위한 치료약으로 널리 이용되었음을 증언한다. 이들 시문은 다산의 엄청난 차 전문지식, 일상화된 음차 습관, 차 제조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낸다. 다산이 혜장에게 보낸 걸명시는 이후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여러 편의 걸명서 등과 함께 우리 차문사에서 특이한 문화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차를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던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다산의 걸명시 이래 글을 보내 차를 요청하는 풍조가 유행처럼 퍼져나가, 이들 시문 속에는 우리 선인들의 차 사랑, 풍류와 해학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³⁷

다산은 『다산사경첩집』에서 다산 초당의 4경인 다조, 약천, 석병, 석가산 네 가지를 꼽고, 각각에 대해 시 한 편씩을 남겼다. 이 중 다산의 차 생활과 관련된 것은 ‘다조’³⁸와 ‘약천’이다.

반반하게 청석 갈아 붉은 글자 새기니

차 달이는 부뚜막이 초당 앞에 놓였네.

36 정민, 앞의 책, 335~336쪽.

37 위의 책, 151~152쪽.

38 위의 책, 155쪽.

반쯤 닫는 고기 입에 불길 깊이 스미고
짐승 두 귀 쫓긋 뚫려 가늘게 연기 나네.
솔방울 주위 와서 새로 숯과 교체하고
매화는 불어 없애 늦게 샘물 조절한다.
정기를 삭게 함은 끝내 경계해야 하니
단약 화로 만들어서 신선됨을 배우리라.

4경 중 제1경으로 꼽힌 다조, 즉 차를 끓이는 부뚜막은 지정 앞에 있었다. 현재 초당 앞에 놓여 있는 꽤 큰 평평한 돌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묘사된 다조는 옥우가 『다경』에서 그려 보인 화로와 부뚜막의 모양을 하나로 합친 생김새에 가깝다. 속은 텅 비고 숯을 넣는 구멍은 반쯤 벌린 물고기 입 모양이며, 찻주전자가 놓일 자리에는 구멍이 뚫렸고, 양옆 손잡이 부분이 봉긋 솟아 여기에 연기를 배출하는 작은 구멍을 뚫은 소박한 형태의 화덕이다.³⁹

다산 4경 중 두 번째로 꼽힌 것이 약천이다. 차를 끓이려면 차에 못 지않게 물도 중요하다. 이 약천에 대하여 다산은 “약천은 지정의 서북쪽 모서리에 있다. 처음에는 그저 웅덩이였는데, 내가 이것을 파자 맑은 샘물이 돌 가운데로부터 솟아났다”라고 적었다.⁴⁰

옥우물 뺀은 없고 다만 모래 깔려 있어
한 바가지 떠 마시면 찬하인 듯 상쾌하다.
처음에 돌 틈에서 승장혈을 찾았더니

39 위의 책, 154쪽.

40 위의 책, 60쪽.

마침내 산속의 약 달이는 집 되었는데.
여린 버들 길을 덮어 빗긴 잎이 물에 뜨고
이마 닿은 어린 도화 거꾸로 꽃이 폈다.
담 삭이고 고질 나음 그 공 기록할 만하니
틈날 때 벽간차를 끓이기에 알맞다오.

다조와 약천을 형상화한 두 차시는 초당해서 차를 자급자족했던 안빈낙도의 그림 같은 삶을 전한다. 차 바구니와 차 맷돌을 갖춰두고 채대에서 채다까지의 모든 공정을 자체 소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했던 다산의 자족적 차생활은 산정의 외딴 처소에서 시작되어 일상화된 소박하고 실용적인 차문화를 알려 주고 있다.

초당은 18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호협력과 유대를 다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스승에게 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생산공동체인 ‘다신계’가 결성되어진 우리나라 차문화 중흥의 역사적인 산실이다. 「다신계절목」은 다산이 제자들과 차로 맷은 계의 조직 배경, 다산의 두 아들을 포함한 18명의 제자 명단, 약조사항 그리고 기본자산인 전답 등을 적은 글이다. 이 중 차와 관련된 것을 보면, ‘곡우날 어린 찻잎을 따서 잎차 한 근과 입하 이전에 늦은 찻잎을 따서 떡차 두 근을 만들고, 또 찻잎을 따는 일은 각자 일정량을 맡아서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굴동 어린이의 뎀을 빌어 찻잎을 따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산의 친필로 쓰여진 후미의 계칙은 읍내 6명의 제자좌목, 매년 창작시와 차의 전달 방법과 철경과 수릉 등의 전등계 승려의 참여 등을 천명하였다.

일본인 이에이리나 아유카이¹⁸⁶⁴⁻¹⁹⁴⁵가 다산 정약용의 고택인 여유당

www.kci.go.kr

으로 현손인 정규영을 방문했던 1931년에 ‘해매다 강진에서 보내오는 금릉월산차’를 대접받았다고 전하였다.⁴¹ 요컨대 1818년에 결성된 ‘다신계’가 1931년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신계’의 신의와 약속이 다산의 현손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전 세계의 차문화사에서 전례가 없는, 소위 오늘날의 ‘차 문화화마케팅’으로서의 ‘다신계’의 문화사적 의의까지를 이 장에서 다루었다.

4. 차문화 콘텐츠의 개발

월남사와 백운동, 백련사, 다산초당과 용혈암, 수정사와 일속산방 그리고 당진 읍내의 사의재와 고성사 등은 탐진강과 강진만 주변을 따라 월출산의 기묘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다. 강진군 지자체는 산과 바다, 강과 평화가 맞닿는 천혜의 역사적인 차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차산업을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차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강진청자축제’, ‘강진야생차품평대회’, ‘팔국사다례제’,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그리고 ‘다산추모제’ 등이 그것이다.

‘강진청자축제’는 고려청자의 지역성, 우수성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최우수축제로 선정할 만큼 크게 발전하였지만, 정작 강진의 전통 차와 관련된 이벤트는 ‘차 예절 겨루기’라는 보잘 것 없는 부대 행사뿐이었다. 강진은 통일신라 후반기에서 시작하여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청자를 구워내던 생산지로 전통 도자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지역브랜드의 차를 유구한 강진 청자 찻잔

41 오사다 사치고, 「금릉월산차와 백운옥판차의 소고」, 『한국차학회』 3, 2008, 102쪽.

에 담아 꾸리는 차상 경연대회, 또 청자 차도구와 강진 차의 동반 전시회를 기획하고, 또 지자체 주도로 차의 약리적 효능이 입증된 신차를 론칭하는 등 강진군 차원의 비중 있는 차문화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야생수제차품평대회’도 강진에서 생산되는 야생수제차의 뛰어난 품질과 전통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문화화마케팅으로 2007년에 시작되어, 제5회 대회부터는 ‘대한민국차품평대회’와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 제6회에는 53종의 차가 출품되고 ‘다산제’와 분리되어 독립 행사로 치러졌고, 제7회에는 51종의 차 외에도 다구와 다식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2016년에는 강진군 다인연합회가 2016년부터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강진다산명차’인 녹차, 홍차, 황차 3종을 판매하고 있다.

‘팔국사다례제’는 원묘국사 요세스님과 8국사 영전에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자연에서 얻는 고운 햇차를 올리는 제식을 말한다. 고려 팔국사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요세스님이 그토록 바랐던 행복한 세상에 성큼 다가가는 데에 헌다례의 의의가 있다. 매년 새롭게 꾸며지는 부대 행사로 햇차 시음, 탁본체험, 단청체험 그리고 뱃지 만들기 체험, 전통 등 전시회, 한지 등에 그림을 그려서 직접 등을 만들어 올리는 체험, 또 주제가 있는 백련사템플스테이 등이 있다. ‘백련결사 학술세미나’에서는 백련결사운동을 주도했던 팔국사의 넋을 기리고 백련결사운동의 성립과 전개과정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두 행사를 합쳐서 팔국사 다례문화제와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다산추모제는 2001년에 시작되어 2014년인 14회까지 ‘다산제’, 2015년에는 ‘다산문화제’, 2016년부터는 ‘다산추모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제례, 헌다례, 다산 골든

벨, 음악마당, 다산 밥상체험 등이 있다. 또한 다산박물관 내의 강진다산 실학연구원은 학술대회, 시민강좌 그리고 지역자료 조사 등을 통해 다산 실학사상과 차문화를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네스코 선정인물에 걸맞은 ‘강진 국제차문화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상 제정’, SSCI급 차 학술지 발행’도 제안한다.

지금까지 강진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문화마케팅 이벤트, 이와 관련된 개발 방안 등을 살펴보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추가한다.

우선 지난 200년 넘게 차문화 전통으로 계승되어 온 ‘다신계’의 신의와 감사,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강진을 차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강진, 세계 차 엑스포’ 유치를 제안한다.

둘째, 귀양살이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500여 권의 엄청난 저술 대업을 가능하게 만든 다인 정약용의 차생활 일대기를 다룬 ‘웹툰 스토리텔링’이나 ‘역사체험프로그램’을 제작/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로 현재 시행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의재 저잣거리’와 ‘조만간 (조선을 만난 시간)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다산이 머물던 사의재를 주막과 청년 창업자들이 입점한 공방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후자는 상황극 및 공연을 통해 다산 정약용, 영랑 김윤식 등 역사/문화적 인물을 만나보며 체험부터 관광 안내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⁴²

셋째, 현재 강진군에서는 만나질 즐기기, 하루 즐기기 그리고 1박 2

42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참조.

일 즐기기 등의 워킹코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강진 차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티로드로 개발한다. 반나절 즐기기에는 A코스=다산초당 → 강진만생태공원 → 영랑생가, B코스=사의재 저잣거리 → 가우도 → 고려청자박물관 그리고 C코스=백운동 원림 → 무위사 →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 등이 있다. 하루 즐기기로는 A코스=남미륵사 → 백운동 원림 → 강진다원 → 무위사 → 하멜기념관, B코스=사의재 저잣거리 → 가우도 → 고려청자박물관 → 한국민화뮤지엄 → 마량항 그리고 C코스=영랑생가 → 강진만생태공원 → 백련사 → 다산초당 → 다산박물관 등이 있다. 1박 2일 즐기기로는 ‘다산의 지성과 영랑의 감성의 만남’으로 이름 붙여진 A코스=다산박물관 → 다산초당 → 백련사 → 영랑생가 → 시문학과기념관 → 사의재 저잣거리 → 백운동원림과 ‘천혜의 자연 속에 깃든 그림 같은 풍경’이라는 B코스=강진다원 → 무위사 → 강진만생태공원 → 세계모란공원 → 남미륵사 → 고바우공원 → 마량항 그리고 ‘강진을 빛고 느끼고 즐기는 시간’을 제공하는 C코스=가우도 → 백련사 → 강진만생태공원 → 시문학과기념관 → 사의재 저잣거리 → 고려청자박물관 → 한국민화뮤지엄 등을 들 수 있다. 코스마다 강진 차문화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다인 정약용의 차생활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유적지를 지나고 있다. 티로드를 따라 강진 곳곳의 야생수제차와 다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최선의 문화체험 공감마케팅이 될 수 있다.

넷째, 백련사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고 티하우스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백련사에서 생산된 만불차는 조선의 대표적인 차였다. 백련사는 스님과 함께 직접 차를 우려서 마실 수 있는 당일 체험프로그램인 ‘다도체험’, 만덕산 오솔길과 옛길을 산책하면서 몸과 마음을 쉼 수 있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108배, 명상 등을 수행하는 ‘단체 체험형 템플스테이’

www.kci.go.kr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무문관에 기숙하여 자율수행을 할 수 있는 ‘장기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을 제공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의 인기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 있다.⁴³ 티하우스는 차밭이나 차를 생산하는 차 농가에서 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차 체험 유형이다. 채다와 제다, 음다와 품평 등 차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을 매번 다른 차와 음식을 먹으면서 다원이 한 눈에 보이는 하우스에서 진행한다. 하동군에서는 다숙이라는 티하우스 체험을 진행하고, 보성에서도 민박하면서 차 수확과 제다 체험을 실시한다. 강진에서도 차 농가들이 주도하는 티하우스 개발을 요구한다.

5. 결론

오늘날은 차가 이른바 웰빙식품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고,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증진에도 기여한다. 차는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차의 이러한 대중화, 다산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강진지역의 차문화 전통 그리고 지역 곳곳에 산재한 차자원과 자연환경에 비하면 강진 차의 산지와 생산, 제조와 활용 등은 그 규모와 수익성에 있어서 인근의 보성이나 하동에 비해 떨어진다. 소비자와 우수산지 지역 차 농가가 협업하는 신 ‘다신계’를 조직하여 차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뛰어난 차 상품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생산자의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문화화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⁴³ 백련사 홈페이지(www.baekrunsa.net) 참조.

돕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시도와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강진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차산업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진 청자, 풍부한 관광자원과 정통 한식문화 등으로 알려진 고장이다. 강진 청자축제가 청자의 상품성과 수익성, 만족도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지만, 차산업과 유기적인 연대를 이루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강진 차문화의 르네상스는 강진청자와의 동반성장에 달려 있다. 청자 찻잔에 강진 차를 담아 지역 생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차와 관광 그리고 한식을 묶는 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지역문화전문가의 육성도 지방정부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절실한 과제이다.

앞서 제시한 다산 차문화학술상 제정이나 국제적인 학술지 발행, 지역성이 강한 백련사템플스테이, 티로드, 티하우스 등의 아이디어도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행되었으면 한다. 월출산은 설악산, 주왕산과 함께 국내 3대 암산으로 손꼽히며, 33.3ha^약 10만평의 녹차밭은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에서 운영하는 차밭으로, 큰 일교차와 맑은 안개가 녹차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키워내는 녹차의 성지로 꼽힌다. 드넓은 차밭과 웅장한 월출산의 조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녹향월촌 마을과 설록다원 주변에서 진행되는 티하우스 체험프로그램은 강진의 새로운 차문화까지도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민규, 『다산 차문화 콘텐츠의 활용방안 고찰 - 강진군을 중심으로』,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박말다, 『정약용의 차 생활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 박흥기, 『다산 정약용과 아담 스미스』, 백산서당, 2003.
- 송재소 외, 『한국의 차문화 천년 1: 조선 후기의 차문화-시』, 돌베개, 2009.
- 양광식 편, 『강진과 차』, 강진문사고전연구소, 2006, 67~68쪽.
- 여연스님, 「강진, 우리차문화 미래를 열다」, 『강진신문』, 2012.6.11.
- 오사다사치코, 「금릉월산차와 백운옥관차의 소고」, 『한국차학회』 3, 2008.
- 윤희주, 『강진 차문화콘텐츠의 활성화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윤경, 『굴산 이유원의 다산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현정, 『한국 전통 제다법에 대한 융복합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장의순, 『초의선집』, 동문선, 1993.
-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 정병삼, 「정약용의 불교 이해와 차문화 향유」, 『남도문화연구』 37, 2019.
-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 1-10, 민족문화추진회, 서울출판사, 1996.
- 조민환, 『동양예술미학산책』, 성균관대 출판부, 2018.
-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7.
- 한윤숙, 「다산 정약용의 실용적 차 인식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43, 2019.
- 한은주, 『다산 정약용의 다생활과 수신철학 연구』,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 기타자료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백련사 홈페이지(www.backrunsa.net)

Abstract

A Study on Tea Culture Traditions and Development of Contents in Gangjin

With regard to Dasan Jeong Yakyong's time of exile

Kim Sung-chul* / Kang Min-ku**

Dasan Jeong Yak-Yong(1762~1836) was the Confucian scholar who was selected as the first World Cultural Person in Korea, in 2012. UNESCO cites the “modern and future-oriented practical ideas of Dasan’s desire and practical power to create a pure world, innovation of the thinking system, legal reform, and egalitarianism” in Gangjin exile as reasons for its selection. He was sent back to Seoul in 1802 while in exile in Janggi from a Catholic oppression case, and was investigated for his involvement in the Hwang Sa-young White Paper case, being proved innocent, but Dasan was exiled to Gangjin again. Gangjin had two elements that could help Dasan design the future of the country and live an academic life as a Confucian scholar. One was the tea life based on wild tea trees throughout Gangjin. The other was human resources: devoted disciples within Gangjin-eup, the Buddhist monks who continued their friendship with human faith and consideration, and the family of Haenam-yoon, a maternal relative who was willing to put Dasan Chodang as his place of residence.

Tea life in exile was served for Dasan as the foundation for his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life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nd superhuman writing that devoted himself to the king, the state, and the people. It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vival of tea cul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paper examines Dasan’s tea life throughout his exile in Gangjin and the tea culture traditions reflected in the tea anthologies he left behind, and explores ways to develop cultural content related to Gangjin tea.

Keywords Dasan Jeong Yakyong, Exile, Tea life, Tea culture, Tea culture contents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Sehan University.

** Sehan University.